

제 목	운치 있는 가을 길	촬영장소 (세부적으로)	신애3호관 앞
			
<p>[스토리]</p> <p>푸르렀던 여름이 지나가고 벌써 가을이 다가왔는지 날이 많이 쌀쌀해졌다. A와 B는 덕분에 장롱에 묵혀뒀던 두꺼운 겉옷을 꺼내어 입고 기숙사를 나섰다. 햇볕은 좋지만 바람이 불어와 꽤나 쌀쌀한 탓에 A와 B는 옷깃을 세운다. 날은 마냥 쌀쌀하기만 한데 또 낙엽이 떨어지는 장면은 제법 운치 있다. 얘기하면서 걷다보니 가을의 쌀쌀함도 어느새 가신 듯하다.</p>			